

# 한국 빛낸 스타들... 새해에도 '스포츠 한류' 계속된다

손흥민, A매치 96번째 출전...올해 월드컵 이끌고 센추리클럽 가입 예약  
고진영, 뒤늦게 끌어올린 기세 이어가 LPGA 세계 랭킹 1위 탈환 목표  
류현진, 30경기 이상 출장해 승전보 자주 전하고 에이스 자존심 되찾기

한국이 자랑하는 '국외파' 손흥민(29·토트넘 홋스퍼), 고진영(26),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은 2022년 임인년에도 세계 최고 무대를 누빈다.

이들은 2022년에도 세계 최고 무대에서 '스포츠 한류'를 이어갈 전망이다.

◇ 손흥민, 2022년 센추리클럽 가입 예약  
손흥민은 2022년 '센추리클럽 가입'을 예약했다.

센추리클럽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10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에게 허락된 빛나는 훈장이자이다.

손흥민은 11월 17일 카타르 도하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6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29분 만드는데 페널티킥을 성공했다.

A매치 데뷔골을 만든 추억의 장소에서, 96번째 경기를 치러 30골을 채웠다.

올해 상반기에 센추리클럽 가입이 유력한 손흥민은 2022년 11월 21일에 개막하는 카타르 올림픽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한국 대표팀을 이끈다.

'손흥민의 전성기'에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할 절호의 찬스다.

◇ 고진영, LPGA 상금왕 4연패 도전

고진영은 2021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 시즌 최다승(5승)까지 3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고진영은 2021년 가을부터 끌어 올린 기세를 2022년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2년 고진영의 목표는 '세계 랭킹 1위 탈환'이다.

고진영은 지난달 23일 귀국하며 "넬리 코다(미국)가 워낙 탄탄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1위를 오르려면 조금 더 많은 우승이 필요하다"며 "내년 시즌에 올해보다 더 잘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1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시작한 고진영은 시즌 초반 슬럼프를 겪어, 1위 자리를 코다(미국)에게 내줬다.

12월 20일 기준으로 고진영은 9.67로, 9.90의 코다에 0.23점 뒤진 2위다.

2021년 가을에 보여준 기세라면, 2022년 시즌 초반에 LPGA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 류현진, 에이스 자존심 되찾는다

2021년 류현진은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 위에 섰다.



손흥민

빅리그 입성 후 개인 최다승 타이틀 기록했지만, 최다 패배 기록 또한 경신했다.

류현진은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4승 10패 평균자책점 4.37을 올렸다.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입성 후 최다인 10패를 당했고, 평균자책점도 여섯 번 이상으로 한 경기만 던진 2015년(11.57)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홈런도 개인



고진영

한 시즌 최다인 24개를 내줬다.

류현진은 2020년 토론토 부동의 에이스로 불렸다. 그러나 2021년 토론토의 에이스는 로비 레이였다.

레이가 팀을 떠났지만 토론토는 호세 베리오스와 연장 계약을 하고, 케빈 가우스먼을 영입했다. 최근 미국 CBS스포츠는 베리오스와 가우스먼을



류현진

토론토 임투펀치로 지목했다.

류현진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법한 평가다. 하지만 류현진은 '저평가' 받을 때마다 반등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2022년 30경기 이상 출장해 승전보를 자주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에이스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한 마디였다. /연합뉴스

## PGA 선수 영향력 1위 미켈슨 보너스 95억...우즈 2위

사상 최초의 '50대 메이저 챔피언' 위업을 달성한 필 미켈슨(51·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올해 신선했던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Player Impact Program)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30일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올해 PGA 투어의 PIP 집계에서 미켈슨이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이거 우즈(46·미국)가 2위"라고 보도했다.

PIP는 올해 PGA 투어가 신선했던 선수 영향력 측정 프로그램으로 이 부문 1위에게 800만 달러(약 95억원)를 주는 등 상위 10명에게 총 4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5개 부문의 지표로 순위를 정하는데 구글 검색량, 글로벌 미디어 노출 정도, 소셜 미디어 언급 빈도, 중계방송 노출량, 선수 친밀도와 호감도 등을 수치로 환산한 Q 스코어가 기반이 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가 양분하고 있는 세계 남자 골프계의 권력 지형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에서 PGA 투어가 선수들에게 내건 '당근책'이라는 평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우즈(왼쪽)와 미켈슨

미켈슨은 올해 5월 PGA 챔피언십을 제패, 사상 최초로 50대 나이에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PIP의 보너스 총액은 2022년 5000만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위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즈는 2위에 올라 보너스 600만 달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켈슨은 올해 PGA 챔피언십을 제패, 사상 최초로 50대 나이에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PIP의 보너스 총액은 2022년 5000만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조코비치, 시드니 대회 불참...호주오픈 출전도 불투명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2022년 1월 1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컵 대회에 불참한다.

ATP컵 대회 조직위원회는 30일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권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ATP컵은 16개 나라가 출전하는 단체전 형식의 대회로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 예정이었으나 불참하기로 했다.

조코비치는 이로써 2022년 1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지만 조코비치는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조코비치가 2022년 1월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중이다. 조코비치는 이달 초 발표된 호주오픈 출전 선수 명단에는 이름이 들어 있지만 가관할 수 있다.

ATP컵에도 출전 선수 명단에 들어있다가 불참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조코비치는 2019년부터 호주오픈 3연패를 달성, 2022년 대회에 출전할 경우 4연패에 도전하게 된다. 자신의 메이저 20승 가운데 호주오픈에서 9차례 우승하는 등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회다. /연합뉴스

## 심석희 재심 청구 포기...올림픽 출전 무산되거나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소를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30일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어제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은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며 "다만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석희가 재심 청구 카드를 포기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방법은 법원 판결만 남았다.

효력 정지 가져본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현재 심석희 측은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아니면 연맹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심석희의 베이징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적다.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종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1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심석희는 1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심석희가 법적 다툼에서 승리해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도 남아야 할 산은 또 있다.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은 빙상경기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지난 21일 스포츠 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선수 부상 상태와 기량을 고려해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심석희는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다시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 코치 육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장을 받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4일 개막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권 박탈 징계와 다르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매트릭스: 리저렉션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해피 뉴 이어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7관 세네카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매트릭스: 리저렉션, 리틀 뱀파이어, 해피 뉴 이어
- 8관 세네카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엔칸토: 마법의 세계,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